궁금했어요

자비심 기도보다 묵주 기도 바칠 때 잡념이 더 생겨서 자비심 기도를 더 많이 바쳐도 괜찮나요?

잠시, 하느님의 권능을 생각하는 마음도, 그분께 감탄하는 생각도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분 사랑에 잠긴 순간도 그분을 생각하고 말하는 일도 모두 귀한 기도입니다. 때문에 어떤 기도가 더 낫다거나 덜 좋은 것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주님의 자비가 온 세상에 임하기를 청하는 기도라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기도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구일 기도보다 짧은(^^) 자비심 기도의 간단한 경문이 마음에 드신 것은 아닐지, 염려해 봅니다. 기도할 때에 생기는 모든 분심과 잡념들은 꼭 이겨낼 각오로 거듭 도전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비심 기도는 아들의 수난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고 자비를 내려 주기 원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기도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더 많은 자비를 베풀고 싶으시다는 예수님의 고백을 기억하여 바치는 의탁의 기도입니다. 묵주를 사용해서 5단 기도를 바칠 때에 예수님의 수난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묵주 한 알마다 주님의 당부를 새기는 정성된 마음으로 온 세상을 그분의 자비하심에 봉헌하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분심 없이 몰입된다면 주님께 큰 위로이며 기쁨일 것이 틀림 없습니다. 묵주 기도의 분심도 떨쳐내기 위한 거룩한 욕심에 도전하세요.

『소곤소곤 아하 그런거군요』, p.74, 장재봉 신부 저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15|10|제72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mssamok.cathms.kr

현인과 빈정꾼

(잠언 9,7-12)

시작 성가

진 행 자 • 가톨릭 성가 26장 '이끌어 주소서' 1, 2절까지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 행 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저희 마음을 열어 주소서.

하느님 말씀

진 행 자 • 한 분이 잠언서 9장 7절에서 12절을 읽어주십시오.

9,7 빈정꾼을 꾸짖는 이는 수치만 당하고
악인을 나무라는 이는 오점만 남긴다.
8 빈정꾼을 나무라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하리라.
지혜로운 이를 나무라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9 지혜로운 이에게 주어라. 그가 더 지혜로워지리라.
의로운 이를 가르쳐라. 그가 견문을 더하리라.
10 지혜의 시작은 주님을 경외함이며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곧 예지다.
11 정녕 나로 말미암아 네가 살 날이 많아지고
너의 수명이 더해진다.
12 네가 지혜롭다면 너를 위해 지혜로운 것이다.
네가 빈정대면 너 혼자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진 행 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진 행 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 행 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 자신이 소중하고 자랑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나누어 봅시다.
– 자신이 어떤 일을 할 때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고 행복한 마음이 드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 행 자 • 한 분이 아래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떫은 감은 '열등감'이고, 가장 맛 좋은 감은 '자신감'이라는 우스갯 소리가 있다. 세상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열등감에서 비롯된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다.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열등감의 대부분은 해결될 수 있다.

만일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있으면 머릿속으로 그려보라. 그것을 얻고 난 후의 나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것도 좋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도 있고, 원하는 것을 소유할 수도 있으며, 원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삶은 그가 생각하는 방식이 낳은 결과물이다.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꽃씨를 가지고 있다. 그 꽃씨를 가지고 어떤 꽃을 피울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오직 자신이다. 자신이 자신을 미워하고 실망스러워하면 남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으려면 먼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주어진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기적을 이룰 수도 있고 실패자가 될 수도 있다.

먼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아야 한다. 어떤 일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며 즐거워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입가에 미소를 짓게 만들고 행복한 마음이 되는가? 그게 바로 나의 진짜 재능이 숨겨져 있는 좌표이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규정해놓은 '성공'이라는 범주와 크게 다를 수도 있다. 내가 지금 당장 할 일은 마음속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다. 다른 이의 눈치를 보거나 세상의 잣대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숨겨진 진짜 재능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이며 자기 자신다움이다. 이것이 바로 현인 삶의 모습이다.

〈은지성, 이형진,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에서〉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 행 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 토의

진 행 자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 침 기도

진 행 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 침 성 가

진 행 자 • 가톨릭 성가 496장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1,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시작은 보잘 것 없었지만

-대건본당 지역분과장 이재숙(데레사)-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 통영에 위치한 대건본당은 김대건 신부님을 수호성인으로 모시고 있으며 남성구역 1개와 혼성구역 11개로 구성되어 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는 반장, 총무 월례회를 실시하고, 둘째 주 금요일에는 사랑공소를 방문한다. 차량을 타고 20분, 다시 배를 타고 40분을 이동하는 먼 여정이지만 미사를 봉헌한 후 함께 점심을 나누며 친교를 나눈다. 셋째 주에는 봉성체에 동행하고 추석과 설에는 합동 차례상을 차려 미사가 끝난 후 전 신자들과 음식을 나누며 뜻깊은 명절을 보낸다. 얼마 전 새로운 모임이 결성된 산양구역 이청심 안젤라 반장님의 사연을 소개하려 한다.

나는 지난날 힘들었던 문제를 해결 하실 분은 하느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1986년 물어물어 천주교를 찾아와 영세하였다. 성당에 오륙 년간 다닐 때까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지만 나의 신상 문제해결이 우선이기에 괘념치 않았다. 하느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나는 평화를 찾게 되었다. 그 후로 공동체생활을 보람있게 하게 됨은 물론이다.

그러던 중 예기치 않게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 통영으로 이사와 대건본당에 다닌 지 햇수로 8년째이다. 사업 실패 후 통영에서 냉면집을 하게 된 동생을 퇴직한 남편과 함께 최선을 다해 도왔다. 그러다보니 주일미사밖에는 할 수가 없게 되었고 처음 영세 받은 후 몇 년 간의 외로운 신앙생활을 이곳에서도 반복하게 되었다. 내가 속한 '산양구역'은 이십여 세대가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지라 소공동체 모임이 없었고 내가 사는 미륵도에서 교우라고는 나 혼자였고, 2년 전 한 분이 영세하셨다.

새 신부님이 오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역미사가 시작되었는데, 내가 속한 구역만 미사가 없는 것이 서운하여 "신부님, 저희 산양구역은 기타구역도 아닌데 구역미사도 없고 소외감이 들어요."라고 말씀드렸더니 구역반장 맡을 사람이 없어서 난감하다고 하셨다. 내가 관심 있어 한다고 느끼셨던지 수녀님과 지역부을 연결시켜주셨고, 나는 구역 내 교우 명단을 받을 수 있었다. 명단을 들고 일일이 연락을 하자 반가워는 하였지만 워낙에 구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모임 하는 곳으로 찾아오기도, 찾아가기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 했던가. 전 본당에서의 경험을 살려 모일 수 있는 몇 가정을 초대하여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복음나누기를 하였고, 두 번째 모임까지 하고 난 후 성당에 가니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주변이 밝아지는 느낌이었다.

이제 더운 8월이 지나고 9월에 모임 요일과 시간을 바꾸면 다른 교우도 참석을 하겠다고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는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다.